

■ 선진농업 현장 ② 상일농장 대표 양문석 ■

# “신선한 채소 생산 위해 토양 질 改善 필요”

## 포천시시설채소연합회 공동구매 등 생산원가 절감 나서

“경운기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던 시절 상계1동에서 대나무 하우스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일농장(포천시 소흘읍 이가림3리 689) 양문석(46·사진) 대표의 말이다. 양 대표는 포천시시설채소연합회 회장으로서 활동 중이다. ‘상일농장’은 상계 1동에서 처음으로 채소를 시작했다고 해서 붙여진 상호다.



양문석 상일농장 대표

양 대표는 미생물 배양을 통해 땅의 질을 좋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보니 토양이 나빠져 포천농업기술센터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미생물 배양을 통해 토양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이 토양에서 재배된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생물 배양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퇴비로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년에 1회 밭짚을 썰어 넣어 토양의 질을 높이고 있다. 밭짚은 5톤 화물차 1대당 70만원이며 이 분량으로 비닐하우스 16개 동에 퇴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5톤 2대면 33개 동에 퇴비를 할 수 있다.

양 대표가 경작하는 33개동의 비닐하우스에는 오이, 토마토, 호박과 같은 과채류와 열매가배추, 숙차, 참나물 등 엽채류를 5-6기작으로 생산하고 있다.

재배품종의 선택은 지난해를 주로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해 심었던 것 중에서 가격이 하락했던 것을 그 시기에 다시 심는다. 이같은 원칙으로 채소를 경작하여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것은 3~4년 전에 정마찰 한 철에만 1억원의 수입을 올릴 때라고 한다.

그러나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형성되면 밭에서 그대로 뒤집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농가에서는 자신의 노하우를 경작하고 이를 고집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양 대표는 생산한 채소류를 인천농산물센터에 경매로 출하한다. 포천시시설채소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양 대표는 1년에 1회 체육대회를 실시해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도모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비닐공동구매를 통해 170여 농가의 비닐을 싸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폐비닐공동구매를 통해 자금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포천에는 갈수록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농사를 뜬 구름 잡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또 업체류의 경우 한여름에는 한낮에 관리를 피하고 새벽이나 저녁늦게 관리해야 한다.

생산이력제 등 농가들의 판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나은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산이력제는 품목에 딱힌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그 품목 생산자의 이력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현재 포천시농업기술센터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대표는 앞으로 채소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법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채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농업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포천시시설채소연합회의 건전한 비관과 새로운 대안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 우리 지역의 사업소 ● 고모리 691 수상레저타운

# “저수지 푸른 물살 가르며 스릴 만끽하자”



대표 한상훈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고모리 저수지에 수상레저타운(소흘읍 고모리 691 대표: 한상훈)이 새롭게 문을 열어 수상레포츠를 즐기려는 동호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 한동안 말쑥하게 느껴졌던 수상레저가 서울올림픽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동호인들이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되면서 점차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한 691한정식에 둘러 691한정식만의 깊은 맛을 느껴보는 것도 이곳만의 특색이다. 이러한 입지에 자리한 691수상레저타운은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거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고객 맞이에 분주한 입장이다.

평일이 아닌 주말에는 인근 외지에서 691를 찾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적이면 평일에 이곳을 찾아 오붓하게 수상레저를 즐기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한 대표는 “고모리는 포천시민들도 많이 찾는 명소지만 의정부나 서울에서 오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며 산정호수에도 수상레저시설이 되어있지만 거리가 멀어 떨어질까봐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며 “시간에 쫓기는 가족이나 연인들이 식사와 차, 이후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상레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고 말했다.

691수상레저타운은 쾌속유람선과 오리배 5대, 페리칸배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3인용 모터보트 2대를 추가해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복잡한 산과 바다를 찾는 것 보다 포천만의 명소와 산해진미를 느껴보자. 방학중인 학생들, 사랑하는 커플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깨끗한 수질과 온풍 녹색으로 펼쳐진 자연경관이

## 쾌속질주 속에서 느끼는 화목한 가족애 연인들의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공간

수몰에 위치한 고모리는 먹거리와 볼거리로 수많은 언론매체에서 앞다투어 보도된바 있어 인근 의정부나 서울북부지역에서 더욱 유명한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가족, 연인들의 나들이 코스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다. 691수상레저타운 개업으로 고모리 지역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또한 고모리 691번지는 수질이 맑고 깨끗한 고모리 저수지를 품안에 안은 채 691정통레스토랑과 691한정식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691레스토랑의 전통과 그 명성이 말해주듯 넓은 연회장과 고풍스러운 실내장식, 더불어 고객들의 구미에 맞게 코스별로 정갈하게 차려져 나오는 식단이 타 음식점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유의 맛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양식을 기피하는 고객들에게는 바로 옆에 위치

어우러진 약 2만여 평이 넘는 고모리 저수지에서 푸른 물살을 가르며 스릴을 만끽해보자.

수상에서 펼쳐지는 쾌속질주 속에서 화목한 가족애를 느끼는 동시에 연인들의 사랑을 재확인해보며 공해에 찌든 심신과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보내는 것도 건강에도 좋을 듯 하다. 이용요금은 모터보트가 1시간당 2만15천 원, 오리배와 페리칸배는 1시간 당 1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영업시간은 해를 무렵에서 해질 무렵까지다. 691수상레저타운은 인근에 죽림산과 국민관광지에 명성이 자자한 국립수목원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관광지까지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여행일정을 넉넉하게 잡고 싶다면 산정호수, 백운계곡, 유명한 온천등을 여행할 수 있다.

문의)Tel:031-541(3)-9691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고모리 691 수상레저타운이 새롭게 문을 열어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 100배의 배수에 상품가입하면 5만원 상품권이!

7월부터 100의 배수에 가입한 고객(100번째, 200번째 등)  
4천명에 5만원 농산물상품권 총 2억원 지급



농협은 상호금융 여수신 200주년 달성을 기념하고 거래고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벤트 100 사은예금'을 40만좌 달성하기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 농협, 이벤트 100사은예금 판매

농협(www.nonghyup.com)은 상호금융 여수신 200주년 달성을 기념

하고 거래고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벤트100사은예금”을 7월 1일부터 40만좌 달성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의 지역농

협에서 판매한다. 행사기간 동안 이 상품에 가입하는 100의 배수인 고객(100번째, 200번째 등) 총 4,000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지역특산물 등 우리농산물을 증정한다.

이 상품은 ▶가입한도가 1,000만원 이상 제한이 없고 ▶가입자별은 개인으로 중복가입도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이율은 지역농협마다 별도 적용하는 해당 예탁금의 금리(4%내외)를 지급한다.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세계형비과세저축 및 세금우대예탁금 등 질세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협 관계자는 “이벤트100사은예금은 거래고객에 대해 이자수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농산물의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사은형 상품으로 목돈을 운용하려는 고객에게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전종생 농업기반공사 연천·포천지사장 就任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농촌 지역종합개발사업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복지공간 창출은 물론,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지은행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고객중심의 현장 밀착 경영을 통해 항상 우리지역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지난 20일 농업기반공사 연천·포천지사장으로 부임한 전종생(全鍾生·사진) 지사장의 취임일서이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호원대학교를 졸업한 전 지사장은 지난 79년 농지개발조합연합회에 입사한 후 농업기반공사 여주·이천 총무부장, 무안·신안 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한양대학교 농촌개발전문과 과정을 수료한 후 부임했다.

매사 업무를 꼼꼼히 챙기는 실무형 스타일로 직원들간의 화합을 중시 여기고 소탈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미 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음에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하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한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물면 되지만,

- 신고·납부 모두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비롯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입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되지 않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의 금액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 × 경과일수 × 3/10,000

### ◆사례

•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甲의 2004년 제2기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 1억원, 매입액 :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0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00만원×50일×3/10,000 = 45,000원

- 총 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00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100만원(1억×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70만원(7천만원×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00만원 × 10% = 30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00만원 × 180일 × 3/10,000 = 162,000원

- 총부담세액 = 5,162,000원 (신고를 한 경우보다 2,117,000원 더 부담)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보고도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 해야 하므로 납부는 못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 산업안전사고 예방

# 버프연마기로 작업 중 가공물 비래

공장 내에서 버프연마기로 수도꼭지 가공 공작물 부분 연마작업 중 손이 닿게 안으로 밀려들면서 가공물을 놓치는 순간 가공물이 연마기 커버 내부에서 2~3회 회전하면서 덮개 상부전면으로 비래하면서 재해자 가슴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상황도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연마기 가공작업시 비래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공물이 덮개 안으로 가공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 가공물이 작고 표면이 미끄러워야 하나 부적합했으며(연마기와 덮개와의 간격 하부 150mm, 측면 130mm), 둘째 연마시 가공물 지지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마기에 적합한 덮개 설치로 연마작업시 가공물이 밀려들어가거나 비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마작업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연마작업시 가공물 지지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연마기의 연마부분 하단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표면이 미끄러운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연마를 할 때에는 가공물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밀착이 잘되는 가죽용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